

전북현대, 5년 만에 시즌 2관왕 도전

오늘 코리아컵 준결승 전주서 1차·27일 강릉서 2차전

현재 리그서 우승 유력... 2020년 이후 2관왕 가능성

시즌 2관왕에 도전하는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코리아컵 준결승에 돌입한다.

전북은 20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FC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를 벌인다.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엔 강릉하이원아레나로 이동해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승자는 승점 합계와 다득점 순서로

가리며, 원정 다득점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률일 시 연장전과 승부차기로 이어진다.

결승에 진출할 경우 K리그1 광주FC 대 K리그2 부천FC1995의 맞대결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다툰다.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12월 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단판으로 펼쳐진다.

전북은 올해 거스 포켓 감독 체제에 돌입한 뒤 평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재 K리그1에서 22경기 무패(17승 5무)를 달리며 승점 60(18승 6무 2패)으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3·12승 7무 7패)에 승점 17 차까지 달아나면서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다.

포켓 감독과 선수들은 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코리아컵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2022년 마지막 우승 이후 3년 만에 코리아컵 정상을 바라본다.

올해 우승 시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 코리아컵 최다 우승(6회) 동률을 이룰 수 있다.

또 2020년 리그와 코리아컵을 동시에 제패한 다음 5년 만에 구단 역사상 두 번째 '더블(2관왕)'까지 꿈꿀 수 있다.

전북은 현재 K리그1 26경기 48득점 20실점으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 모두 1위에 오를 만큼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공격에선 전진우, 콤파노, 티아고, 송민규 등이 출격하고, 수비는 김태현, 김영민, 홍정호, 김태환 등이 구성할 예정이다.

전북은 최근 상승세는 물론 올해 강원을 상대로 리그에서 3전 2승 1패로 우위를 점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뉴시스

진안 역도 꿈나무, 전국대회 승전보

한국한방고 김운상, 한국중고역도선수권 금 2·은 1 패거

진안역도스포츠클럽 소속 김운상 선수(한국한방고 1학년)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중고역도선수권대회(한국중고역도연맹 주최, 충청남도역도연맹 주관)에서 고등부 남자 81kg급에 출전하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패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김운상 선수가 올해 한 차례의 고배를 담고 고등부 무대에서 거둔 첫 성과로, 인상 104kg, 용상 123kg, 합계 227kg을 기록하며 인상과 종합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용상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한국한방고



김운상 선수의 열정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쓰고 진안군 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극우 SNS 게시물' 장채환

양궁협회 징계 가능성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 게시해 논란이 됐던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33·사상구청)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양궁계에 따르면 대한양궁협회는 장채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협회 스포츠포럼위원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개최 여부는) 금일 오전 중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2025년 리커브 양궁 남자 국가대표가 된 장채환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장채환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며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여러 건 올린 건뿐 아니라, SNS 프로필 소개 설명에 '별궁'이라고 써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5조에는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지람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장채환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뉴시스



‘무주 태권도원 We Are The One 훈련캠프’에 참가 중인 난민 태권도 선수단.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난민 태권도 선수들, 태권도원에서 훈련한다

태권도진흥재단, '무주 태권도원 We Are Te One 훈련캠프' 추진
25일까지 진행... 난민 선수들,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출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과 함께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올림픽 난민 태권도 선수를 위한 '무주 태권도원 We Are The One 훈련캠프'(이하 훈련 캠프)를 진행한다.

난민 선수 5명과 지도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13일 태권도원에 도착해 25일까지의 훈련 캠프에 참가중이다. 이들은 '올림픽난민재단(ORF)' 장학금 수혜자(이탈리아 거주 이란 출신 선수)와 르완다(부룬디 출신 선수), 요르단(시리아 출신 선수

들) 거주 등 '태권도박애재단(THF)' 난민캠프 태권도아카데미 선수들이다.

태권도원 훈련 캠프에서는 국내 태권도 지도자 초청 훈련과 무주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단과의 합동 훈련 및 교류,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특히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열리는 '2025년 경찰청장기 전국단체태권도대회' 견학도 계획하고 있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기술교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민 훈련 지원은 2028 LA 올림픽 출전을 위한 난민 태권도 선수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올림픽 정신에 맞춘 다양성 추구 등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 종목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원이 WT 중앙훈련센터로 올림픽 정신 확산과 태권도를 통한 국제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 캠프를 갖게 되었다"라며 "참가 지도자와 선수들이 기량 향상과 함께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익혀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훈련 캠프에 참가한 난민 선수들은 이날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무주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에 조효익 신규 감독 임용

구단은 내년 1월 창단 예정

진안군이 2026년 1월 창단 예정인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을 공개 채용하고 지난 18일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조효익(54) 신규 감독은 전주 상산고와 건국대를 졸업, 대한항공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중(교치)부터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감독)까지 10년 동안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전북체육고등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의 지도자를 맡아 우리 전북자치도의 테니스 저변확대와 실력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을 이끌 조효



익 감독은 "진안군과 전북자치도의 테니스 위상을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의 새로운 가족이 된 조효익 감독을 환영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테니스선수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 태권도 대표팀 경기력 향상 앞장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맞춤형 과학 훈련 프로그램 진행

전북스포츠과학센터(센터장 이방섭)가 청소년 태권도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과학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청소년 태권도 대표팀은 현재 김제시에서 하계 전지훈련 중이며 이날 전북스포츠과학센터를 방문해 체력 측정을 받았다.

과학센터는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체력을 비롯해 민첩성과 신경 반응 등 운동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측정을 통해 선수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맞춤 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방섭 센터장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 프로그램을 접목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